

문화사를 주축으로 재구성한 백제사 정치와 사회구조에 대한 분석 약해

백제사 연구

이기동 지음

일조각/A5신/302면/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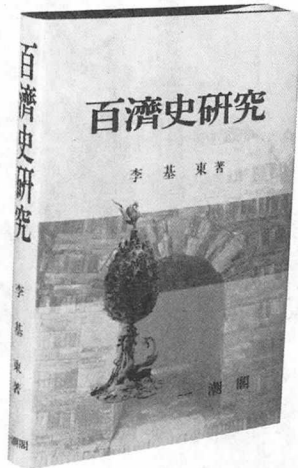
이 책은 1971년 무령왕릉의 발굴을 계기로 저자가 백제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 집필한 13편의 논문들을 <백제사 총설> <마한에서 백제로> <백제의 정치와 사회> <백제의 대외국 관계>로 분류하여 편집한 것이다. 저자의 백제사 연구에 대한 기본 입장은 사료의 부족이라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사를 주축으로 백제사를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 입장에서 저자는 문헌 비판과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을 끊임없이 추구하였다. 이 책은 저자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물로서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책에는 백제사의 전개와 문화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글도 있고, 백제왕 모도(牟婁)의 실체를 밝힌 것처럼 특정한 문제를 깊게 천착한 것도 있다. 또 정치사뿐만 아니라 문화사·사회사·이념사에 관한 글도 실려 있어 저자의 다양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가지는 특성이 무엇이며, 백제의 건국 및 성장과정상에서 마한의 존재와 그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밝힌다. 《일본서기(日本書紀)》 '신공기 49년조'의 기사와 칠지도(七支刀) 명문 및 광개토태왕 비문의 왜(倭) 관계 기사를 어떻게 파악해야 백제와 왜(倭)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저자는 1974년에 첫 글을 발표한 이후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새로운 자료들이 나와 기왕에 쓴 글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주(補註)를 달았다. 이는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지 않는 학문적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저자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각 주제에 대한 연구사를 요령있게 정리하여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제까지의 연구 경향과 문제점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책에도 몇가지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이 책은 기왕에 발표한 글들을 모아 편집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적지 않다. 둘째, <백제의 정치와 사



회)의 경우, 복잡하게 전개된 백제의 정치와 사회구조에 대한 천착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백제의 대외국 관계>는 구도상에서 볼 때 <백제의 대외관계>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넷째, 백제의 대외관계에서 왜국과의 관계에 비중을 두다보니 고구려, 신라 및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근래 백제사 연구는 특정한 시대나 주제 및 기본자료의 성격에 대한 천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에 나온 10여편의 백제사 관련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제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각 시대와 분야를 통합하고 이를 거시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사적 시각에서 백제사를 종합적으로 보려고 한 이 책은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새로운 지표를 제시해준 역저이다.

노중국

계명대 사학과 교수. 저서 <백제 정치사 연구>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외.

실학에 대한 철학적 연구성과 탈성리학적 철학체계 성립에 주목

실학의 철학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예문서원/A5신/576면/17,000원

실학의 집대성자라고 불려도 좋을 정약용의 대표적 저술을 들라 하면 일반적으로 <목민심서> <경세유표>를 꼽게 마련이고, 다른 실학자들의 학문 경향도 현실에 대한 구체적 개혁책이나 박물학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렇게 표층으로 드러난 것에만 주목하여 그러한 학문적 성과를 낸 일련의 흐름에 놓여 있는 심층적 사유를 지나치기 쉽다. 심지어는 정약용이나 최한기 등 몇 실학자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실학자들은 단지 현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서의 개선책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어떤 경우는 사문난적으로 몰려 추방당하는 위험까지 감수한 치열한 의식의 배후에 어찌 현실을 보는 근본적인 안목으로서의 심층적 철학이 없을 수 있겠는가? 실학의 전개 속에는 맥맥이 이어져 오는 철학적 사유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결국 실학 자체의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학계가 일찍이 경제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에 비하여, 철학계의 심층적 철학에 대한 연구가 늦어 오랜 동안 실학의 연구는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다행히도 80년대 이후 철학계의 실학에 대한 연구열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불균형이 점차로 극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상사연구회' 편저인 <실학의 철학>은 이러한 흐름의 정점에 있는, 실학에 대한 철학적 연구의 대표적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윤사순 교수가 이끄는 '한국사상사연구회'의 소장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내놓은 공동연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실제적인 공동작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윤사순 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공통적 학문의 기반을 지닌 학자들이 알맞게 분야를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일반적인 '편저'의 단점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식의 지평에 있어서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살 수 있다.

1부 '실학의 발흥', 2부 '실학의 전개', 3부



'실학의 심화'로 나누어 서술하여 실학의 각 단계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박세당·홍대용·정약용·최한기를 탈성리학적 철학체계의 정립에 가장 기여한 대표적인 철학자로 집중 조명하고 있다. 경제적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역사학계의 실학자들에 대한 연구 방식과는 달리, 이렇게 탈성리학적인 철학체계의 수립을 중심으로 실학의 심층을 연구하게 된 것도 철학계의 실학연구가 제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단철정론> <인성물성론>에 이어 이렇게 계속 어떤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의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사상사연구회'의 힘찬 활동에 이번의 <실학의 철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만큼 이 책에는 그간 실학의 철학에 대하여 중요한 업적을 남긴 학자들의 글이 압축되어 실려 있다. 한국철학에 관심이 있는 수준 높은 일반 독자층, 그리고 실학의 철학적 바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려는 전공학자들은 반드시 한번 손에 들어야 할 책이다.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사회주의의 정부개입주의 오류 지적 시장경제와 인간본능의 갈등 다뤄

치명적 자만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지음/신중섭 옮김
한국경제연구원/A5신/390면/10,000원

진보적 지식인의 뿌리는 대단히 깊다. 서구에서는 플라톤으로부터 진보주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60년대 이래로 이 땅에서 필명을 날렸던 지식인들 대부분은 독재에 용감히 맞섰던 진보적 지식인들이었다. 필자가 가지는 아쉬움은 독재에 맞선 지식인들 가운데 진보적 지식인에 필적할 만한 이른바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지식인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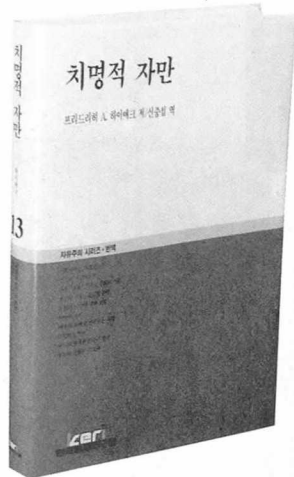
《치명적 자만》을 쓴 하이에크 교수는 집단주의 분위기가 서구 사회에 휘몰아치던 그 시절에 사회주의와 정부개입주의와 같은 집단주의의 맹점과 그 귀결을 정확히 내다보았던 선각자이다. 지식인 사회가 한결같이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반대편의 입장에 서서 사회주의가 결국 인류를 노예의 길로 몰아넣게 될 것임을 예견하고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이에크 교수는 이 일을 해낸 사람이다. 그는 《노예의 길》과 《자유의 헌법》 등을 통해서 그의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널리 펼치게 된다. 특히 47년에 조직한 '몽 페르린 소사이어티'는 지금까지도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유명하다.

따지고 보면 영국의 대처 수상이 주도했던 개혁이나 뉴질랜드의 사회주의 사회로부터의 탈피와 같은 개혁들이 결국 하이에크 사상의 지적 후예들이 해낸 일이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언젠가 죽지만 사상은 살아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림을 하이에크라는 선각자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번에 신중섭 교수가 번역한 《치명적 자만》은 하이에크 교수의 최후작이다. 그는 평생을 소수로 남았던 자유주의자들을 대표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자신의 예언적 통찰력이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 집필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의 학문적 결론이나 자신의 성공담을 담담하게 때로는 자신만만하게 펼치고 있다.

이 책의 부제는 '사회주의의 오류'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정부개입주의의 오류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능과 이성의 갈등, 본



능에 기반을 둔 사회공학에 대한 지식인의 염원, 시장에 대한 무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시장에 대한 무지는 인간이 타고난 본능에서 우러나오며, 이같은 본능은 시장경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반감의 형태로 표출된다. 여기서 본능에 바탕을 둔 인간의 사회공학적 접근은 결국 사회주의라는 전대미문의 실험을 낳게 된다.

시장을 마음껏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하이에크의 교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유달리 큰 한국사회는 도처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백년을 향해 시스템 개조에 착수해야 하는 시점을 맞고 있다. 이같은 작업에 하이에크 교수의 지적 통찰력은 한국인에게 많은 교훈을 제공할 것임에 틀림없다.

공병호

한국경제연구원 자유기업센터장. 저서 《갈등하는 본능》 《한국 경제의 권력 이동》 외.

출판편집전문회사

삼연편집실

낚시터의 즐거움

저수지와 어종만 선택해 놓으십시오.
다른 낚시도구 일체는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월척을 낚을 채비만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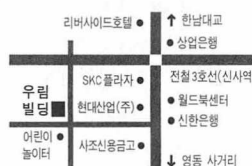
사업내용

집필 : 자서전 · 회고록 · 개인출판 및 문학 · 위인전 등
윤문 :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정 : 사전류 · 참고서류 · 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집 :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등

기계설비

매킨토시 5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3대
스캐너 2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함께 일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내용 중 특히 교정·교열 쪽의 일을 자신있게 떠맡아 감당해 낼 수 있는 분은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경력이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일을 해보신 분이었으면 합니다.



三硯編輯室

대표자 :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화 : 549-6883~5 팩스 : 549-6877
천리안 ID : SAMYEON